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63〉

좋고 싫음이 없어야 도인이다

학승이 물었다.
"어떤 것이 학인의 본분사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도대체 무엇을 싫어하는 거야?"

問 如何是學人本分事/師云 與麼嫌什麼

학인의 본분사는 훌륭한 스승에게 묻고 배우는 것이다. 경지가 높아져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고 질문이 끊어졌을 때 비로소 학인이라는 딱지를 뗀다.

학인이 제일 먼저 수행해야 하는 것은 좋고 싫은 것을 버리는 것이다. 보통 사람은 누가 나에게 와서 좋은 말을 해주면 기뻐하나, 싫은 소리를 해주면 영 개운해하지 않는다. 마음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면 이것은 불행의 근원이 된다. 어떠한 말·의미에도 마음이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그때서야 감히 수행자라고 말할 수 있다.

진정한 수행자는 무엇을 만나고 듣고 보아도 전혀 싫어함이 없어야 한다. 누가 좀 지나친 행동을 하여도, 누가 수행자의 본분을 잃고 있어도, 그 어떤 것에도 일단 나의 마음에서 분별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 후 회초리가 필요 한가, 사랑이 필요 한가 선택해야 한다.

도인에게 물어보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마음에서 싫어하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사회를 리드할 사람이고 국가를 이끌고 나아가야할 사람이다.

학승이 물었다.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내가 청주(青州)에 있을 때 한 벌의 장삼을 만들었는데 무게가 일곱 근이 나갔어."

問 萬法歸一一歸何所/師云 我在青州作一領布衫重七斤

종문에 유명한 화두이다.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은 결국 하나로 귀착된다는 것이다. 그 하나를 불교에서는 마음[心]이라 하고, 유신론 종교에서는 절대신[神]이라고 하고, 유교에서는 하늘[天]이라 하고, 도교에서는 도[道]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이야 뭐라고 하건 그렇게 하나로 돌아간다면 그 하나는 다시 어디로 귀착되는가라는 질문이다.

> 모든 것은 하나로 귀착
> 화두는 스스로 풀어야

이에 대해서 조주 스님은 '장삼의 무게가 일곱 근'이라고 말했다. 이 화두의 뜻을 알고 보면 참으로 오묘한 대답이다. 선사들이 즉석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근본과 지말을 다 꿰뚫고 있기 때문이다. 본질과 작용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 이렇게 말하기 힘들다.

화두는 스스로 푸는 것이다. 만일 이것을 누가 알려준다면 그 순간 화두는 죽어버리고 듣는 자는 영원히 깨닫지 못하게 되고 만다. 화두를 함부로 설명하다가는 남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만다. 또한 그 누가 화두에 대해서 최적합하게 설명했다 해도 그것은 절대 화두의 뜻일 수 없다.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애당초 화두가 될 수 없다. 다만 듣는 자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부가 설명은 할 수 있다. 만일 누가 나에게 "그 최후의 하나가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고 묻는다면 다음과 같이 말하겠다.

"내 옆에는 송묵(松默) 스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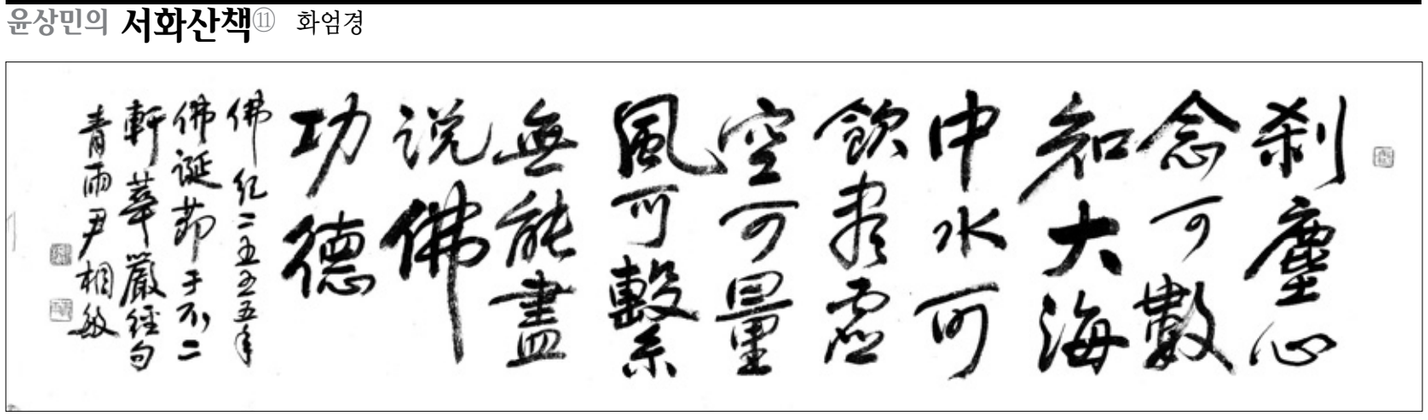
학승이 물었다.
"출가(出家)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임금을 대하여도 신하의 예를 갖추지 않고 부모도 오히려 예배한다."

問 如何是出家兒/師云 不朝天子父母返拜

출가한 사람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본래 자신을 되찾는 것이다. 이는 바로 자신은 부처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다. 그 후 온갖 악습을 버리고 참된 자기다운 인생을 살아간다. 곧 부처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하니 임금을 대할 때에도 신하의 예를 갖추지 않고 부모도 오히려 예배하게 되는 것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윤상민의 서화산책 ⑪ 화엄경



刹塵心念可數知 大海中水可飮盡 虛空可量風可繫 無能盡說佛功德

찰진심념가수지 대해중수가음진 허공가량풍가계 무능진설불공덕

塵: 티끌 진 飮: 마실 음
盡: 다할 진 量: 헤아릴 량
繫: 맬 계

부처님의 공덕

刹塵心念可數知 大海中水可飮盡 虛空可量風可繫 無能盡說佛功德(찰진심념가수지 대해중수가음진 허공가량풍가계 무능진설불공덕)

우주의 먼지같이 많은 생각들을 헤아려 알고 대해의 바닷물을 다 마시고 허공을 다 헤아리고 바람을 휘어잡는 능력이 있어도 부처님의 공덕은 다 설할 수 없네.

서예가(동아미술상 수상 작가)

선어록 해제 43 한국선과 선어록 14 금강반야바라밀경윤관(金剛般若波羅密經綸貫)

함허득통의 〈금강경〉 견해서

〈금강반야바라밀경윤관〉은 함허득통이 〈금강경〉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설명한 것으로 유명하다. 〈금강경오가해〉에서 여러 선인들의 견해를 열거하고 배열한 것과는 달리 함허가 여기에서는 〈금강경〉의 분과를 형식상으로는 10문으로 나누고 내용적으로는 상근기와 중근기와 하근기에 따른 것으로 정리를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금강경〉의 구조와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함허는 〈금강반야바라밀경윤관〉에서 선수행의 수증관에 근거해 〈금강경〉의 구조 및 내용에 대한 해석을 가하고 있다. 내용상으로는 무착의 18주(住) 분과 및 천친의 27단의(斷疑) 분과에 동의하면서 형식으로는 독창적인 3단 10문의 분과를 제시하고 있다. 함허는 여기에서 내용과 형식의 둘을 아울러 취급해 3종근기 10문으로 분과하고 있다. 함허는 차제개시(次第開示)와 누누이법(累累而法)이라는 두 가지 형식을 바탕으로 하여 선수행의 수증관을 위한 3종근기의 내용으로 분과했다. 이를테면 차제개시는 상근기를 위해 설한 것으로 서분과 정종분과 유통분을 10문으로 차례에 따라 개시한 것이다. 제1문인 서분에 해당하고, 제10문인 유통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제2문부터 제2~9문까지 8문은 모두 정종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서 함허의 분과가 독특한 것은 정종분의 전체를 다시 상근기를 위하여 8문으로 배대하고, 다음 중근기를 위해 다시 8문을 배대했고, 다시 하근기를 위하여 8문을 배대했다.

> 〈금강경〉 각 분과 10문으로 나눠
> 상·중·하근기 따라 구조·내용 정리

정종분 가운데서 상근기를 위한 8문은 첫째는 의리기신문(依理起信門, 亦名開示悟入門)이고, 둘째는 의오기수문(依悟起修門)이며, 셋째는 성행취과문(成行就果門)이고, 넷째는 인과원융문(因果圓融門)이며, 다섯째는 법종미래문(法通未來門)이고, 여섯째는 의리불적문(依理拂迹門)이며, 일곱째는 현승권지문(現勝勸持門)이고, 여덟째는 환시불적문(還示拂迹門)이다.

이처럼 정종분의 전체 가운데 8문의 차제에 따라 상근기를 위한 설법은 다음과 같은 상호인과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모든 중생이 본디 반야를 구비하고 있으며 현재 제불의 과해(果海)에 있으면서도 제불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개시를 만나면 활연히 깨칠 수 있을 것이므로 정종분의 첫째는 의리기신문이다. 그러나 돈오의 정편지각(正遍知覺)이 원래부터 구족되어 있어서 수행과 증득을 말미암지 않고도 획득된다 할지라도 애(愛)·욕(欲)·에(恚)·치(癡) 등으로 인해 무명을 대치하는 방법을 모르고 수행을 연마하는 공능을 모른다면 무상과해(無上果海)에는 끝내 증입하지 못할 것이므로 다음으로 정종분의 둘째는 의오기수문이다.

또한 본디 부처님의 과해(果海)를 구비하고 있을지라도 수행이 없으면 오르지 못하므로 육바라밀을 두루 수행한 연후에야 과위를 증득하므로 정종분의 셋째는 성행취과문이다. 또한 깨침과 수행과 증득의 문에는 과(果)와 인(因)이 분명해 인은 과해(果海)를 갖추고 있고 과는 인원(因源)에 사무쳐 있어 전후의 차별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정종분의 넷째는 인과원융문이다. 또한 원융한 설법은 현재뿐만 아니라 후세까지도 두루 이롭게 하므로 다음으로 정종분의 다섯째는 법통미래문이다. 또한 깨침과 수행과 증득과 인과와 미래까지 통하는 법문 등일지라도 그 자취를 여의지 못하면 소위 득(得)과 설(說)이 곧 마득(魔得)이고 마설(魔說)일 뿐이다. 그러므로 무소득과 무소설을 터득한 연후에야 진실한 득과 설이 가능하므로 다음으로 정종분의 여섯째는 의리불적문이다. 또한 중생은 무득과 무설이라는 말을 듣고는 증득에 나아갈 마음을 없애버리고, 무설이라는 말을 듣고는 가르침을 받들려는 마음을 놓아버린다. 때문에 다음으로 정종분의 일곱째는 현승권지문이다. 또한 중생을 위한 교화형식을 폐지해서도 안되고, 자비의 교화정신도 폐지해서는 안된다. 때문에 다음으로 정종분의 여덟째는 환시불적문이다.

그러나 상근기가 아닌 사람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해 다시 설법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누누이설(累累而說)이 등장한다. 이미 상근기를 위해 설법한 다음에 해당하므로 누누이설이라 한다. 3종의 근기를 위한 대단락은 처음의 "가사를 수하고 발우를"의 부분부터 "세계라 이름한다"까지는 상근기를 위해 개시한 것이고, "가히 32상을 통해서 여래를 볼 수 있겠느냐"는 부분부터 "곧 범부가 아니다"까지는 중근기를 위해 개시한 부분이며, "가히 32상을 통해서 여래를 볼 수가 있겠느냐"는 부분부터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는 부분까지는 하근기를 위해 개시한 것이다.

이것은 처음 발심으로부터 수행과 깨침과 증득(성불)이라는 수증의 차제와도 통한다. 그러나 함허는 이와 같은 과정을 부득불 재차 나아가서 재삼 설명하지 않으면 안됐던 이유가 곧 근기의 차이임을 인정한 바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3종의 근기를 일깨우기 위한 이러한 분과는 대승보살이 지녀야 할 마음으로 모든 중생에 대해 차별없이 대하는 광대심(廣大心), 중생을 영원상주한 열반계로 이끌어가는 제일심(第一心), 중생을 동체대비심으로 대하는 상심(常心), 중생이라는 분별심이 없어 자기 속에서 따로 중생을 보지 않는 부전도심(不顚倒心) 등의 4종심에도 상통하는 것이다.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의 저자 우학 스님의 신간

감사하고 사랑하며

책을 펼치는 순간부터 삶의 빛깔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학 스님은 감사와 사랑을 참좋은 행복 바이러스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참좋은 행복 바이러스인 감사와 사랑이 우리가 늘 꿈꾸는 행복, 그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스님의 일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일상이라는 것이 보통의 우리에게 그리 멀지도 낯설지도 않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래서 행복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음을 이 책은 깨닫게 할 것입니다. 지금, 감사하고 사랑하십시오….

참좋은행복 바이러스 | 컬러 304쪽 | 정가 13,000원 | 구입문의_ 도서출판 좋은인연 또는 불교대학서점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행자모집 합니다)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7 불교대학서점 053-474-8229
홈페이지 한국불교대학 www.TVbuddha.kr 다음카페 불교인드라망 cafe.daum.net/indelamang

佛紀 2555年 辛卯年 Buddha's birthday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 직할 포교당
보 현 사

주지 지 우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2동 932-35
TEL 053)431-5400

경북 성주군
사암 연합회

회 장	천불사	법원
총 무	지안사	지안
기획실장	장산사	지원
포교부장	길조암	보현
조직부장	자은사	지형
감 사	성화사	지현
	약사암	홍제
회 원	보광사	지영
	대승정사	묘덕
	북지장사	묘련
	관음사	지마
	문수사	담현

■ 경북 성주군 벽진면 매수리 775
TEL 054)932-8443